

고창군 '호남권 드론통합센터' 유치

국토부, 성내면 일원 설립예정지 결정...3년간 국비 180억원 투입 비행 설비 등 인프라 구축...관광객·교육생 유입 등 경제효과 기대

고창군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호남권 드론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설립 예정지로 고창군 성내면 일원을 최종 결정했다.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국비 180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과 장비 일체를 조성하고 고창군은 부지제공과 진입로 개설, 도로·전기·상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맡게 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상주 운영인원은 20여명 내외, 연간 교육생과 자격시험생은 300여명으로 예상된다.

고창군은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로 드론 비행

시험·인증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은 물론 일반인 드론 교육과 자격증 취득시험 등 드론 전반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돼 관련 산업의 호남권 거점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첨단항공으로 사업확장성이 무궁무진한 드론 생산제작자 입주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규모도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최근 레저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체험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드론 자격시험생과 교육생의 유입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군수는 연초부터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원제 국토부 제1차관 등을 면담하고 센터 유치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특히 고창의 호남권 유일 항공특성화고등학교

인 '강호항공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인재육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차 산업의 핵심사업인 드론산업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고창군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균형발전까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민선 8기 심덕섭 군수가 취임하며 연이은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오는 2027년까지 낙후된 고창 터미널 일원을 탈바꿈할 16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레저산업 분야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통하는 '윙퍼리조트'로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고창군 심원면 일원에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3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제35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가 오는 3월4일 산내면 뱀사골(반선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축제 때 육신녀들이 약수제례에 앞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을 항아리에 담고 있는 모습. <남원시 제공>

정읍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받으세요

지정 신청 연중 접수...현판 배부·축산 보조사업 우선 혜택

정읍시가 축사와 주변 경관이 조화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악취 개선을 위해 나섰다.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 저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가축분뇨를 신속 처리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받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과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었던 농장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희망하는 농장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단 말 사육농가는 올해부터 신규 신청대상으로 포함됨 관계로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장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장은 현장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정 조성상태, 소독일지 작성 13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는다.

깨끗한 축산농장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7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현재 한우 65개소, 젓소 7개소, 돼지 30개소, 양계 40개소, 오리 4개소 등 관내에 146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 시내버스 승강장 35곳 시설 개선

정읍시가 노후화된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5억25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 승강장 35개소를 교체·정비한다.

이러 3억1600만원을 투입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120개의 승강장 내 탄소 냉·온열 벤치를 놓고 1억3000만원을 들여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설치한다.

또 버스표지판도 미관이 우수하고 시인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교체하며 바람막이와 LED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눈·비, 마연,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승강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리 등 시설물 유지



정읍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시내버스 승강장 중 한 곳인 터미널 인근 종로약국 앞 승강장. 보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버스 승강장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량·신축시 저리 융자

고창군이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자 '2023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항목에 새롭게 추가돼 청년혜택이 늘었다.

사업물량은 총 120동이며 신청 대상은 농촌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사용하려는 주민이다.

희망자는 오는 3월17일까지 주택이 위치해 있거나 위치하게 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지금 남원은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

다음달 4일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 이벤트 다채

남원 지리산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다.

남원시는 '제35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를 오는 3월4일 산내면 뱀사골(반선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산내면 발전협의회와 지리산남원 뱀사골 고로쇠영농조합 주관으로 열린다.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 먹거리 장터, 농산물 판매장, 저렴한 가격에 고로쇠 약수를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판매장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이 개인 컵을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고로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 고로쇠 음수대'도 마련된다.

최종식 산내면 발전협의회장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는 일교차가 큰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생산돼 맛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음료 건 강식품으로서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면서 "고로쇠의 깊은 맛과 지리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새봄 날들이로 더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 뱀사골과 달궁, 반야봉 등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약수는 지리적 특성상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친환경 고산 지역에서 생산돼 최상품으로 평가 받는다. 2월 초부터 경칩을 전후해 3월 말까지 생산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